

2025년 **성날** 가정예배 순서

묵상기도 시편 23:1-2 (묵상기도 중에 인도자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느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설 명절을 맞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새해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신앙고백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 1절**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 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 2절**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 3절**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 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기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할 수도 있고, 모든 가족이 한 두 문장씩 짧게 돌아가며 기도한 후에 인도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하여 기도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봉독 시편 1:1-3

-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이다

말씀선포 복 있는 사람의 길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아름답게 그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도 복 있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하며, 시편의 가르침을 세 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길입니다. 악인의 꾀란 단순히 나쁜 조언만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쉽게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밝히는 등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합니다.

둘째,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묵상'이란 단순히 읽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이 묵상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삶의 방향을 명확히 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이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복된 삶의 시작입니다.

셋째,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습니다.

시냇가에 심긴 나무는 항상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린 사람이 매시기마다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그의 삶이 생명력으로 가득 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풍요를 경험하며, 각자가 맡은 자리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형통은 단순히 물질적인 성공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누리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뜻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가며,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 인도자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편 1편을 통해 복 있는 사람의 길을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른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뿌리내리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 가정과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서로에게 축복이 되는 존재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행통의 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 송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후렴)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절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의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주기도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림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의 길 <시편 1:1-3>

- ▣ 일 시 : 2025년 1월 29일(수)
- ▣ 장 소 : 각 가정의 적당한 곳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천중앙교회